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주요국의 경제교육 현황 및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정책방향 논의
-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필요한 핵심 경제역량과 경제교육 전략 모색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5.7.23(수) 9:30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❶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 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❷ 「경제배움e+」 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 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❸ 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의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있는 경제 시민의 역량이 필수 요소”라 강조하였고,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대·계층·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경제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는 7.23(수)부터 7.24(목)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일차에는 세계 경제전망을 살펴보고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구조적 정책방향, 평등과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어서 미국·핀란드·싱가포르의 경제교육 현황과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경제교육의 현주소와 각국 경제교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2일차에는 AI 혁명, 기술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역량인 디지털 활용역량과 기업가정신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경제교육 전략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은퇴자,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 우수사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의 품질과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경제교육 기관들의 교구재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KDI,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사 7곳 등 총 9개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교재와 교육용 보드게임, 교육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경제교육 기관 및 교육종사자들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수 교육사례와 교구재 및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	책임자	팀 장 박혜수 (044-215-2550)
		담당자	사무관 김재원 (jwkim11@korea.kr) 주무관 최동환 (ehdghks610@korea.kr)